

보 도 자 료 2015. 1.30.(금)	내용문의	김동식 연구위원 (02-3156-7156)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5. 1. 30.(금)
	※ 총 4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여성건강,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젠더렌즈’ 관점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건강통계로 본 여성건강과 젠더 관점” 주제로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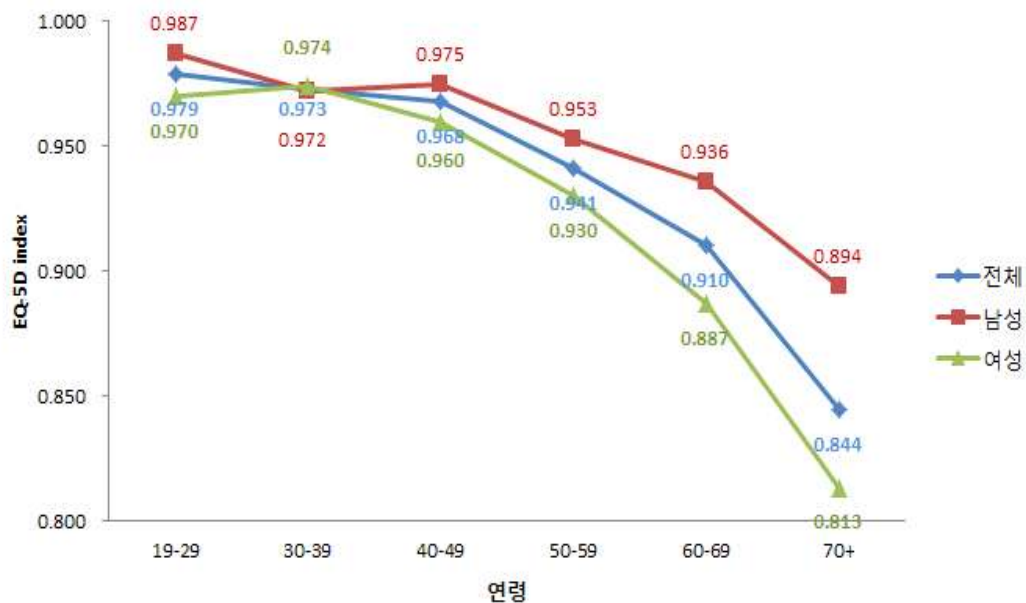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은 “건강통계로 본 여성건강과 젠더 관점”을 주제로 성 인지 통계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이 리포트는 건강에서 젠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통계청과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발표한 보건·건강 자료의 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명선 원장은 “여성 건강의 경우 남녀 차이를 반영한 보다 세밀한 원인 분석과 연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성 건강 관련 정책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삶의 질, 성별 간 격차 30대 이후 크게 벌어져

- 2012년 기준 건강한 삶의 질의 현황을 남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를 기점으로 성별 간 격차가 확연히 관찰됨.
- 즉, 영유아 및 청소년, 청년기를 거치면서 성별 간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좁혀지고, 30대에서는 0.97로 거의 동일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30대 이후부터 임신과 출산 및 사회 경력 단절과 재진입 등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부재들이 누적되는 것은 노년기로 갈수록 성별 간 삶의 질 격차가 더 커지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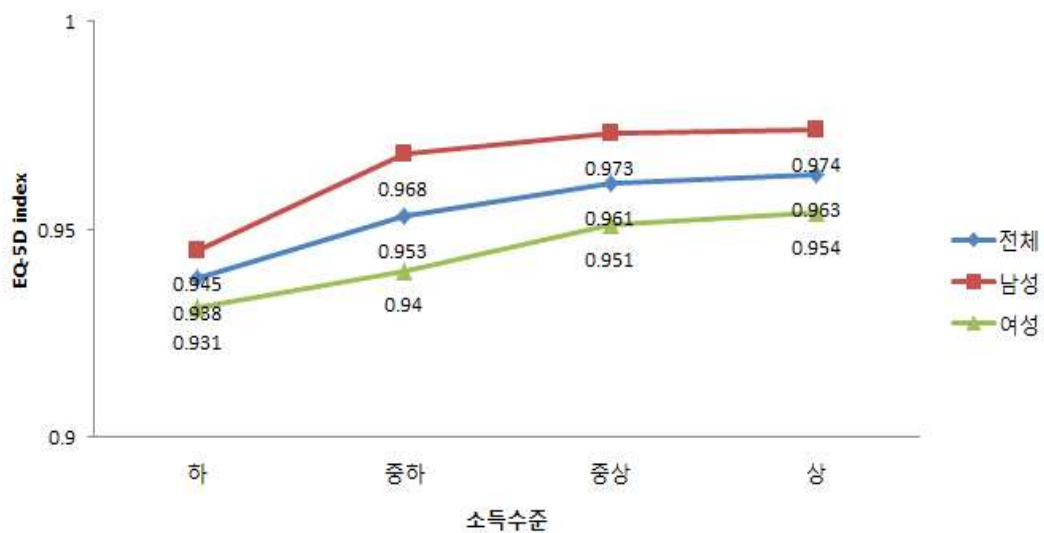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EQ-5D 추이(성별, 만 19세 이상) 재분석(원자료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임).

<그림 1> 성·연령별 건강관련 삶의 질

성별 내 건강 관련 격차에도 관심 가질 필요

- 성별 간 건강 관련 격차뿐만 아니라 성별 내 격차도 존재함.
- 2012년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성별 간 건강관련 삶의 질 격차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가 낮음. 또한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도 낮음.

- 특히, 가구소득이 ‘중하 이상’ 인 남성은 건강관련 삶의 질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하’ 그룹의 여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구소득과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정비례 형태를 보임.
- 즉, 가구소득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관련 삶의 질의 기울기(gradient)가 더 명확히 관찰됨.



자료: 통계청 KOSIS, EQ-5D 추이(성별, 만 19세 이상) 재분석(원자료는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임).

<그림 2> 성·소득수준별 건강관련 삶의 질 분포

- 김동식 연구위원은 여성건강의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젠더 렌즈’의 필요성을 언급함.
- “건강은 남성과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특성만으로 성별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도 사회구조화 과정에서 변형될 수 있고 그 사회적 영향이 생물학적 영향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지적하며,

- “건강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관찰되는 현상이나 특징, 원인들에서 상이한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에 젠더 렌즈(gender lens)가 필요하다” 고 설명함.

붙임 1. <KWDI 성 인지 통계 리포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